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승단을 바르게 '외호' 하는 길

얼마전 동창들 모임이 있었다. 모임이 정지부터 종교 얘기까지 다양한 토론이 넘쳐났다.

모임 끝무렵에 가서 한 친구가 나에게 불속 말을 던졌다. "아, 너희 스님들 아주 멋지더라!" 그 말이 진정 좋은 의미로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비아냥 대는 듯한 그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

"너네 목사님들은 안 그러냐?" 나의 반격이 가해졌지만 순간 나는 나의 성급함을 후회했다. "옛날 무학 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일화가 떠오르는구나. 대사 모습을 꼭 돼지 갈고 구로"라는 이성계가 말에 무학 대사는 "말하는 부처님같이 보이옵나" 했어. 이성계가 "서로 농을 하자고 했는데 웬 찬사야?" 하고 인상을



의복·차량 '고급' 선호 여전해 재가자들 '시주문화' 바뀌어

이교 부처님 눈엔 부처님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했다" 라고 말해주어야 야할 것들... 친구 말이 듣기는 싫어도 한편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젠가 조계사 앞을 지나는데 여기 저기 많은 스님들이 대로변에 세워둔 승용차에 오르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날은 중앙총회가 끝나는 날이었다.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였다. 물론 스님들이라고 고급차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었느냐 그 때 무진장 스님이 생각났다.

내가 조계사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가 조계사 앞길에서 무진장 스님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빈 차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 급히 스님 앞에 차를 세우고 어디 가시느냐고 여쭙니 법문하러 가신다고 했다. 제 차로 모시겠다고 하니 한사코 사양하셨다. 택시 타고가면 될 것을 무엇하러 갔다가 다시 오느냐며 기름낭비라고 했다. 이후 두 번 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스님께서는 늘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셨다.

일 때문에 바쁜 종단의 어른스님들이 차를 타시는 것까지야 어찌 언급할 것인가. 교단의 어른 스님은 타도 괜찮고 우린 타면 안되는 나고 항의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분수를 알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구름 걷힌 하늘이 파랗듯이 우리들 모두 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승가는 출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재가자들은 승가를 사표(師表)로 삼아 실천행을 생활화했으면 한다.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망친다고 흔히들 말한다. 물론 극히 일부의 흔적이겠지만 거대한 담도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인해 무너지는 이치를 되새겨야 한다. 고급 차량과 고급 가사장삼을 스님들께 바치는 것만이 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외호(外護)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해야겠다. 언제 어디서건 스님들을 뵈올 때 공손한 자세로 예를 갖추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스님들을 위할 것인가.

김대원(의정부시 호원동)

포교사 전문 대학원 설립

조계종 포교사단, 내년부터 2년제 운영

포교사 전문 대학원이 설립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포교사전문아카데미 과정을 업그레이드해 2005년 신학기부터 2년제 전문포교사 양성 대학원을 개원 운영한다.

포교사단은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사명감과 자비심, 종단을 외호하는 탁월한 지성과 수행력을 가진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학원 개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년제 포교사 전문 대학원으로 구성된 포교사전문대학원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학장으로

추대하고, 포교현장 관리능력, 실력, 수행력을 갖춘 지도교수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교육과정을 병행해 마련될 수업은 매주 3시간 안팎으로 포교명상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간호복지 불교강의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수강자격은 불교대학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포교사단은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찰문화해설포교사, 사회복지포교사, 청소년지도포교사 등 종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도의국사 표준영정 제작

제작위, 세미나등 계획

조계종이 종조인 도의국사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등 도의국사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조계종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원회(위원장 무관, 이하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12월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영정 제작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종조 선양 차원에서 폭 넓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청회

나 세미나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또 영정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무관(총무원 총무부장), 여연(총무원 기획실장), 성정(총무원 문화부장), 현고(한국불교문화사 담당장), 법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홍선(적지사 성보박물관장) 스님, 김경숙 씨(가사복식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남동우 기자

직지사 새주지 성웅 스님 10일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후보에 상주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직지사는 12월 10일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었으나 함께 출마한 영전 부귀사 법심 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웅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산중총회는 109명 재적에 59명이 참석했다. 성웅 스님은 1970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 71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원우회 수계법회. 조계종 일반적 총무원 모임인 원우회(회장 윤승환)는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철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계사로 12월8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1사찰 1가정 결연캠프 내년 1월 초 만해마을

조계종 총무원은 2005년 1월 5~7일 3일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후원학생 80여명을 초청해 사찰문화 등을 체험하는 '조계종 결연 캠프' 행사를 마련

한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후원 스님들과 종로구 결연학생 20명, 각 지역 사찰 결연학생 25명, 기존 사찰에서 지원해온 결연아동 25명, 종립학교 지원학생 20명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이젠 문화복지다"

불교계 NGO '문화복지연대' 창립준비 분주

문화복지연대 창립준비위원회(이하 문화연대)는 물질적 시혜

의주의 복지 개념을 정서적 만족을 심어주는 즐거운 복지, 찾아가는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개념의 'NGO 문화복지연대(가칭)' 창립을 12월 16일 공식발표한다. 이날 문화연대 창립준비위는 "문화인과 사회복지인들이 연대해 우리 사회의 불건전하고 모호한 문화코드를 문화해택을 누리는 문화복지 개념으로 새롭게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선언. '문화해택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 일례로 결식아동의 경우

후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 또는 전시회 등을 관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연대에는 진각복지재단, 윤이상 평화재단을 비롯, 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L.M.B 싱어스, 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협찬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복지관에 풍경소리 계사관 보급, 법률적 자문 및 상담, 문화복지의 집 건립 등의 사업을 펼쳐나간다. 문화복지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미성 의원은 "사회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문화복지가 정착돼야 올바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문화복지연대의 활동은 물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점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동참을..."

김근태 복지부장관 법장 스님 예방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사업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김 장관은 1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특히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범종단 차원에서 그늘진 곳에 자비가 전해지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올해에

이내 내년도 '1사찰 1가정 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종교계 사회복지 협력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소득층 자립지원 △야동복지·가정해체 대책 △자살방지·생명존중운동 확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 등이다. 남동우 기자

대불련 총동문화 '2004 자비의 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화회(회장 성기태)는 현대불교신문 후원으로 12월 22일 오후 7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4 자비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교계 제 1행선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해 비인간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등기 자선 디너쇼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의 : 019-286-0108(이명근 기획부위원장)

중앙승가대학교 200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신(편)입학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Table with 5 columns: 계열, 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비고. Rows include Humanities, Social, and Total counts.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Table with 3 columns: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계. Rows show percentages and scores for 40%, 60%, and 100%.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년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본교 교학처, 교부기간: 2004. 12. 13(목) ~ 2004. 12. 27(월), 접수기간: 2004. 12. 22(수) ~ 2004. 12. 27(월, 17:00까지), 단,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5년 졸업예정자포함), 4) 승적증명서 1부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주민등록 등본 1부, 6) 사진(종단의 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x4cm) 5매 제출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나)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외 타종단 스님에 한함)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2) 전형료: 60,000원

◆ 전형일정

- ◇ 예비소집: 2005. 1. 13(목) 13:00 ~ 14:00, ◇ 면접 및 인성검사: 2005. 1. 13(목) 14:00

* 수험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타

- ◇ '05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 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인원

Table with 5 columns: 계열구분, 학년, 전산코드, 학과, 모집인원. Rows show detail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 지원자격

- ◇ 일반편입: 2005년 3월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만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5년 3월에 조계종 승남 만 2년 이상인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타

-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중 2005학년도 사미(나) 편입생은 졸업 후 후속계 수지 자격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통무동 159-1 ☎(031) 980-7713-5